

충남사회조사를 통한 태안군 청년실태분석

이 관 료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krlee@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사회조사를 활용하여 태안군의 청년실태분석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데 있음.

CONTENTS

1. 배경 및 목적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3. 태안군 청년의 실태분석
4. 결론 및 향후과제

요약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충남사회조사를 활용하여 매년 태안군의 청년실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태안군의 청년실태는 청년의 모습,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여가, 정책수요 등임.
- 다만 충남사회조사를 활용하여 태안군의 청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23년의 기준 충남사회조사에서 태안군 청년의 조사표본이 실제 태안군 인구 비중 보다 과소 표집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충남사회조사 시 태안군 청년의 표본수가 태안군 청년 인구 비례로 추출되어야 할 것임.
 - 충남사회조사의 태안군 조사표에 참여·관리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청년실태조사의 기본적인 항목을 충족시켜야 할 것임.
 - 충남사회조사의 조사항목과 청년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비교하여 추가할 수 있는 분석변수를 발굴하고, 기존 변수사용의 문제점을 확인 및 보완해야 할 것임.
- 향후 태안군의 청년실태조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사내용을 태안군 청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실천이 요구됨.
 - 태안군 청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청년의 유형화와 태안군 청년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태안군 청년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들과 공유하고, 실태조사의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태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하는 청년실태조사와 매년 충남사회조사를 활용한 청년실태조사의 연계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매 2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충남청년실태조사와 연계하여 태안군 청년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01 배경 및 목적

- 태안군은 2018년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 관련 정책기반을 확충해 오고 있음.
 - 태안군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2020년)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2021년부터 태안군 위원회 구성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게끔 하고 있음.
 - 특히 2024년 태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가지 전략, 9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태안군, 2024b).
- 태안군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태안군 청년의 실태와 정책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지속적인 청년의 실태 파악이 강조되고 있음.
 - 태안군에서는 5년 마다 수립되는 태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태안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한정된 태안군의 재정을 고려할 때, 매년 태안군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제6조에 의하면, 태안군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한편 중앙정부 및 충청도에서 청년실태조사를 수행하지만, 태안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2023년 시행된 충남의 청년실태조사의 경우, 청년의 연령 범위가 19~39세로 태안군(18~45세)과 상이할 뿐 아니라 시군의 청년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충남 청년실태조사에서는 총 2,113명의 청년을 조사하였는데, 이중 태안군의 청년은 96명
임. 충남도는 통계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원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충청남도, 2023).
- 한편 충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충남사회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원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청년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은 일자리(취업 및 창업), 주거(주거형태, 정주의향,
주거환경 만족도, 희망주거정책), 교육(정규교육, 취업관련교육, 교육분야 정책수요), 복지
(취약계층, 전체적인 건강, 정신건강, 자녀보육, 자산형성), 문화·여가(문화·여가활동, 희
망 문화·여가활동 및 정책), 참여·권리(교류·관계, 참여의향 및 방법) 등임.
 - 충남사회조사에는 청년실태조사의 참여·권리를 제외한 5개 분야와 관련된 항목이 있기 때
문에 태안군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사회조사를 활용하여 태안군의 청년실태분석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데 있음.
 - 만약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태안군의 청년실태분석이 가능하다면, 향후 충남사회조사를 통
한 태안군의 청년실태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반대로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태안군의 청년실태분석이 곤란하다면, 향후 태안군에서 청년
실태분석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0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의 특징

-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이란 “태안군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안군의 청년의 연령을 18~45세로 설정하도록 함.
- 2023년 12월 기준 태안군의 인구는 총 60,784명임. 이중에서 20~45세 인구는 11,606명으로 전체 인구의 19.1%에 해당됨. 그리고 20~45세 인구 중에서 남자는 6,632명(57.1%)이고, 여자는 4,974명(42.9%)임(태안군 웹사이트, 2024).
 - 태안군 통계연보에서는 연령 자료를 5세 단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8세와 19세의 청년인구를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45세를 기준으로 청년 인구를 파악함.
- 한편 2023년 충남사회조사에서 태안군의 표본수는 총 1,115명이고, 이중에서 18~45세 표본수는 143명으로 전체 표본의 12.8%에 해당됨. 그리고 18~45세 표본 중에서 남자는 78명(54.5%)이고, 여자는 65명(45.5%)임.
- 충남사회조사에서 청년인구의 표본 비중은 실제 태안군 청년인구 비중보다 6.3%p 작게 추출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청년인구 중에서 남자의 표본 비중은 2.6%p 작게, 반대로 여자의 표본 비중은 2.6%p 많게 추출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사회조사에서 태안군 청년의 비중은 실제 태안군 청년인구 보다 다소 작게 추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남자는 더 작게, 반대로 여자는 좀 더 많이 추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청년 인구의 비중이 10%p를 넘지 않아 충남사회조사의 태안군 청년 표본이 태안군 청년실태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태안군 인구에서 청년 비중과 충남사회조사의 청년 비중이 5%p 이하로 추정되었다면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태안군의 청년실태를 파악하는데 좀 정확할 것으로 판단됨.

〈표 1〉 분석자료의 특성

(단위: 명, %)

구 분	전체	청년인구	남자	여자
태안군 인구	60,784	11,606 (19.1)	6,632 (57.1)	4,974 (42.9)
충남사회조사 중 태안군 표본	1,115	143 (12.8)	78 (54.5)	65 (45.5)
비중 차이	-	6.3	2.6	-2.6

2) 분석기준의 설정

- 그간 태안군에서는 청년정책을 인구유입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음. 태안군은 최근 20년간 인구가 60,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연간 10,000명 규모의 인구 유출입이 발생하고 있음(태안군, 2024a).
 - 2021년 기준 태안군의 20대~40대 유입인구는 총 2,300명인데, 이는 전체 유입 인구 5,030명의 45.7%에 해당하는 것임.
 - 태안군으로 유입되는 20~40대 인구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2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안군의 청년을 태안군에서 자란 현지 청년과 외부에서 유입된 유입 청년으로 구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인의 나이를 태안군의 거주 기간으로 나누어서 해당 값이 2 미만이면 태안군에서 자란 현지 청년으로 구분하였고, 2 이상인 경우는 유입 청년으로 구분하였음.
 - 나이를 거주기간으로 나누어서 2 이상인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태안군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2 미만인 경우는 늦어도 15세 이전부터 태안군에서 거주한 경우임.
- 태안군의 청년을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을 구분해 보면, 총 143명의 표본 중에서 현지 청년은 56명(39.2%)이고, 유입 청년은 87명(60.8%)로 나타남.
 - 따라서 태안군의 청년은 현지 청년 보다 유입 청년이 20%p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2〉 태안군 청년인구의 유형화

(단위: 명, %)

총 청년	현지 청년	유입 청년
143 (100.0)	56 (39.2)	87 (60.8)

3)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는 태안군의 청년실태를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청년실태분석은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청년의 모습,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여가, 정책수요 등으로 구분하도록 함.
- 한편 태안군의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의 실태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빈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χ^2 분석과 평균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분산분석을 수행하도록 함.
 - χ^2 분석과 분산분석은 통계패키지 SAS를 이용하도록 하고, 통계적 검증은 유의수준 10%에서 수행하도록 함.
 - 따라서 유의수준(prob)이 0.1보다 작은 경우,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의 통계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03

태안군 청년의 실태분석

1) 청년의 모습

- 태안군 청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78명(54.6%)이고, 여자가 65명(45.5%)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에서 성별의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태안군 청년은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음.

〈표 3〉 성별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남자	78 (54.6)	35 (62.5)	43 (49.4)
여자	65 (45.5)	21 (37.5)	44 (50.6)

$\chi^2=2.3491$, $df=1$, $prob=0.1254$

- 태안군 청년의 평균 연령은 36.0세이고, 현지 청년의 평균 연령은 35.4세, 유입 청년은 연령은 38.4세임.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64명(4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46명(32.2%)임. 반면 20대는 30명(21.0%), 10대는 3명(2.1%)임.
 - 한편 유입 청년의 경우 30대가 39명(44.8%)으로 가장 많은 반면, 현지 청년은 20대 이하와 4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표 4〉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10대	3 (2.1)	3 (5.4)	0 (0.0)
20대	30 (21.0)	16 (28.6)	14 (16.1)
30대	46 (32.2)	7 (12.5)	39 (44.8)
40대	64 (44.8)	30 (53.6)	34 (39.1)

$\chi^2=19.8571$, df=3, prob=0.0002

- 태안군 청년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결혼이 78명(54.6%)이고, 미혼이 65명(45.5%)으로 결혼이 미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의 혼인상태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태안군 청년은 결혼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5〉 혼인 상태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1 (100.0)	56 (100.0)	85 (100.0)
미혼	65 (45.5)	27 (48.2)	38 (43.7)
결혼	78 (54.6)	29 (51.8)	49 (56.73)

$\chi^2=0.2828$, df=1, prob=0.5949

- 태안군 청년의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2인 이상 가구가 92명(64.5%)이고, 1인 가구가 51명(35.7%)임.
- 현지 청년은 2인 이상 가구가 75%인데 반해 유입 청년의 57.5%임. 반면 현지 청년은 1인 가구는 25%이고, 유입 청년은 42.5%임.
- 따라서 현지 청년은 2인 이상 가구가 많은 반면, 유입 청년은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6〉 가구원수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1인 가구	51 (35.7)	14 (25.0)	37 (42.5)
2인 이상 가구	92 (64.3)	42 (75.0)	50 (57.5)

$\chi^2=4.5623$, df=1, prob=0.0327

- 태안군 청년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읍 지역이 131명(91.5%)이고, 면 지역은 12명(8.4%)임.
- 그리고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의 거주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태안군 청년은 대부분 읍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7〉 거주지역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읍 지역	131 (91.6)	49 (87.5)	82 (94.3)
면 지역	12 (8.4)	7 (12.5)	5 (5.8)

$\chi^2=2.021$, df=1, prob=0.1551

2) 청년의 일자리

- 조사대상 143명 중에서 근로를 하는 청년은 97명(67.8%)이고, 근로를 하지 않는 청년은 46명(32.2%)임.
- 그리고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의 근로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태안군 청년의 약 70%가 근로를 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8〉 근로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일하였음(일시휴직 포함)	97 (67.8)	42 (75.0)	55 (63.2)
하지 않았음	46 (32.2)	14 (25.0)	32 (36.8)

$\chi^2=2.1673$, $df=1$, $prob=0.1410$

- 한편 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육아 또는 가사가 19명(43.2%)로 가장 많고, 건강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구직활동 중인 사람은 4명(9.1%)에 불과함. 그리고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 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의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43명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4명, 즉 2.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육아 또는 가사, 그리고 쉬었음 등의 청년이 전체 16.8%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9〉 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44 (100.0)	14 (100.0)	30 (100.0)
구직활동	4 (9.1)	0 (0.0)	4 (13.3)
취업준비	5 (11.4)	4 (28.6)	1 (3.3)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 준비	3 (6.8)	1 (7.1)	2 (6.7)
육아 또는 가사	19 (43.2)	4 (28.6)	15 (50.0)
쉬었음	5 (11.4)	2 (14.3)	3 (10.0)
건강상 어려움	7 (15.9)	3 (21.4)	4 (13.3)
기타	1 (2.3)	0 (0.0)	1 (3.3)

$\chi^2=9.2495$, $df=6$, $prob=0.160$

- 취업을 하고 있는 97명의 고용지위를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가 71명(73.2%)이고, 비임금 근로자가 26명(26.8%)임.
- 한편 유입 청년은 임금 근로자가 44명(80.0%)인 반면, 현지 청년은 임금 근로자가 27명(67.3%)임.
- 따라서 현지 청년은 유입 청년에 비해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 지위별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97 (100.0)	42 (100.0)	55 (100.0)
임금 근로자	71 (73.2)	27 (67.3)	44 (80.0)
비임금 근로자	26 (26.8)	15 (35.7)	11 (20.0)

$\chi^2=2.9974$, df=1, prob=0.0834

- 취업 청년 97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기능·노무가 37명(3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가 24명(24.7%), 전문/관리 18명(18.6%) 등임.
- 한편 현지 청년은 상대적으로 기능·노무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유입 청년은 전문/관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 직업별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97 (100.0)	42 (100.0)	55 (100.0)
전문/관리	18 (18.6)	3 (7.1)	15 (27.7)
사무	12 (12.5)	6 (14.3)	6 (10.9)
서비스/판매	24 (24.7)	11 (26.2)	13 (23.6)
농어업	6 (6.2)	5 (11.9)	1 (1.8)
기능/노무 등	37 (38.4)	17 (40.5)	20 (36.4)

$\chi^2=9.5050$, df=4, prob=0.0496

- 그리고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전일제 고용은 54명(76.1%)이고 시간제 고용은 17명(23.9%)임.
- 한편 고용형태는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따라서 태안군 청년은 시간제 고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12〉 고용형태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71 (100.0)	27 (100.0)	44 (100.0)
전일제	54 (76.1)	23 (85.2)	31 (70.5)
시간제	17 (23.9)	4 (14.8)	13 (29.6)

$\chi^2=1.9938$, $df=1$, $prob=0.1579$

- 태안군 청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9시간이고, 태안군 내 일자리 기회충분도는 2.4, 소득만족도는 3.1로 나타남.
- 따라서 일자리 기회충분도는 낮고, 소득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13〉 평균 근로시간 및 직장 만족도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F값(prob)
주당 평균 근로시간(시간/주당)		41.9	42.0	41.9	0.00(0.9803)
일자리 기회충분도		2.4	2.5	2.4	0.32(0.5717)
소득만족도		3.1	3.1	3.0	0.72(0.3993)
직장 만족도	하는 일	3.4	3.5	3.4	0.17(0.6836)
	임금·소득	3.2	3.3	3.1	1.21(0.2747)
	근로시간	3.2	3.3	3.2	0.62(0.4316)
	근무환경	3.4	3.4	3.4	0.03(0.866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4	3.5	3.4	0.01(0.9126)
	고용안정성	3.4	3.3	3.4	0.85(0.3584)
	일·직장의 미래성	3.1	3.2	3.0	0.83(0.3650)

주: 일자리 기회충분도, 소득 만족도, 직장만족도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 그리고 태안군 청년의 직장만족도를 살펴보면, 하는 일(3.4), 근무환경(3.4),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3.4), 고용안전성(3.4)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임금·소득(3.2), 근로시간(3.2), 일·직장의 장래성(3.1)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한편 직장만족도에서는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3) 청년의 주거

- 태안군 청년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65명(4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 37명(25.9%), 다세대 주택 19명(13.3%), 연립주택 15명(10.5%)임.
- 한편 현지 청년은 상대적으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유입 청년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 주거형태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단독주택	37 (25.9)	20 (35.7)	17 (19.5)
아파트	65 (45.5)	21 (37.5)	44 (50.6)
연립주택	15 (10.5)	10 (17.9)	5 (5.8)
다세대 주택	19 (13.3)	4 (7.1)	15 (17.2)
기타	7 (4.9)	1 (1.8)	6 (6.9)

$\chi^2=13.9222$, $df=4$, $prob=0.0075$

- 그리고 태안군 청년의 주거점유형태를 보면, 자기 집이 70명(4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월세/기타가 58명(40.6%)로 나타남.
- 현지 청년은 자기 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입 청년은 월세/기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 주거점유형태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자기 집	70 (49.0)	38 (67.9)	32 (36.8)
전세	15 (10.5)	5 (8.9)	10 (11.5)
월세/기타	58 (40.6)	13 (23.2)	45 (51.7)

$\chi^2=13.7626$, $df=2$, $prob=0.0010$

- 태안군 청년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거주 주택(3.2), 주거지역 주차장 이용(3.1), 공공시설의 이용(3.0),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3.0)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남.
- 한편 쇼핑시설의 이용(2.6), 휴식공간 이용(2.9) 등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는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16〉 주거환경 만족도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F값(prob)
거주 주택	3.2	3.2	3.2	0.05(0.8251)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	2.6	2.6	2.5	0.78(0.3797)
시청, 군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시설 이용	3.0	3.0	3.1	0.68(0.4113)
공원, 놀이터 등 휴식공간 이용	2.9	2.8	2.9	0.79(0.3748)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3.0	3.1	3.0	0.51(0.4760)
주거지역 주차장 이용	3.1	3.0	3.1	0.13(0.7156)

주: 주거환경 만족도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 태안군 청년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살펴보면, 택시(3.1)와 시외·고속버스(3.0)의 만족도는 보통이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2.8)와 기차(2.5)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만족도에 대한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태안군 청년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17〉 대중교통 만족도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F값(prob)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2.8	3.0	2.7	2.13(0.1480)
시외 · 고속버스	3.0	3.1	3.0	0.34(0.5632)
택시	3.1	3.1	3.2	0.37(0.5431)
기차	2.5	2.7	2.5	0.26(0.6108)

주: 대중교통 만족도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 태안군 청년의 평균 태안군 거주기간은 17.0년임. 현지 청년의 거주기간은 33.2년이고, 유입 청년의 거주기간은 6.6년임. 따라서 현지 청년이 유입 청년에 비해서 태안군의 거주기간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태안군 청년의 평균 정주만족도는 3.1로 보통임. 그러나 현지 청년의 정주만족도는 3.3이고, 유입 청년의 정주만족도는 3.0로 현지 청년의 정주만족도가 더 높음.
- 향후 10년 후 태안군 거주 의사에 대해서 현지 청년은 3.6인 반면, 유입 청년은 3.1임. 따라서 현지 청년이 유입 청년에 비해서 향후 태안군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18〉 거주기간 및 향후 정주의사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F값(prob)
태안의 거주기간(년)	17.0	33.2	6.6	459.59(0.0001)
정주만족도	3.1	3.3	3.0	3.18(0.0768)
10년 후 태안 거주 의사	3.3	3.6	3.1	6.48(0.0120)

주: 정주만족도와 10년 후 태안 거주 의사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4) 청년의 교육

- 태안군 청년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 이상이 70명(4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졸이 69명(48.3%)임.
- 현지 청년의 고졸 비율은 62.5%인 반면, 유입 청년의 대졸 비율은 56.3%임. 따라서 현지 청년은 주로 고졸인 반면, 유입 청년은 주로 대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9〉 학력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중졸 이하	4 (2.8)	0 (0.0)	4 (4.6)
고졸 이하	69 (48.3)	35 (62.5)	34 (39.1)
대학 이상	70 (49.0)	21 (37.5)	49 (56.3)

$\chi^2=8.9131$, df=2, prob=0.0116

- 태안군 어린이집 만족도와 유치원 만족도는 각각 3.6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태안군의 평생교육 충분도는 2.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현지 청년(2.8)은 유입 청년(2.6)에 비해서 평생교육 충분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모두 평생교육의 충분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음.

〈표 20〉 보육시설 만족도 및 평생교육 충분도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F값(prob)
어린이집 만족도	3.6	3.3	3.8	0.71(0.4327)
유치원 만족도	3.6	3.5	3.7	0.09(0.7888)
평생교육 충분도	2.7	2.8	2.6	2.95(0.0887)

주: 만족도와 충분도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5) 청년의 복지

- 태안군 청년의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200~300만원이 38명(2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이 25명(18.3%), 300~400만원이 20명(14.6%) 등임.
 - 그리고 100만원 미만이 19명(13.7%), 100~200만원이 17명(12.5%)로 나타남. 그러나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 가구 소득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37 (100.0)	52 (100.0)	85 (100.0)
100만원 미만	19 (13.9)	6 (11.5)	13 (15.3)
100~200만원 미만	17 (12.4)	7 (13.5)	10 (11.8)
200~300만원 미만	38 (27.7)	11 (21.2)	27 (31.8)
300~400만원 미만	20 (14.6)	6 (11.5)	14 (16.5)
400~500만원 미만	18 (13.1)	12 (23.1)	6 (7.1)
500만원 이상	25 (18.3)	10 (19.2)	15 (17.7)

$\chi^2=8.595$, df=5, prob=0.1264

- 태안의 청년 중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가끔 있었다가 77명(5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별로 없었다가 51명(35.9%)임. 반면 매우 자주 있었다가 9명(6.3%), 전혀 없었다가 5명(3.5%)임.
 - 전체 청년의 60% 정도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22〉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2 (100.0)	55 (100.0)	87 (100.0)
전혀 없었다	5 (3.5)	2 (3.6)	3 (3.5)
별로 없었다	51 (35.9)	21 (38.2)	30 (34.5)
가끔 있었다	77 (54.2)	29 (52.7)	48 (55.2)
매우 자주 있었다	9 (6.3)	3 (5.5)	6 (6.9)

$\chi^2=0.2795$, df=2, prob=0.9638

- 월소비액과 월가구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족한 청년이 99명(69.2%)임. 그리고 동일한 경우가 33명(23.17.7%), 그리고 남는 경우는 11명(7.7%)임.
- 현지 청년은 동일한 비율이 유입 청년에 비해서 높은 반면, 유입 청년은 현지 청년에 비해서 남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월소비액 - 월가구소득 차이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부족 (월소비액 - 월가구소득 > 0)	99 (69.2)	39 (69.6)	60 (69.0)
동일 (월소비액 - 월가구소득 = 0)	33 (23.1)	16 (25.6)	17 (19.5)
남음 (월소비액 - 월가구소득 < 0)	11 (7.7)	1 (1.8)	10 (11.5)

$\chi^2=5.3811$, df=92 prob=0.0678

- 태안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은 6.10이고, 행복도는 6.10, 걱정정도는 4.38, 우울도는 3.86으로 나타남.
- 태안 청년의 삶의 만족감, 행복도, 걱정정도, 우울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들은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24〉 삶의질 만족도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F값(prob)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	6.10	6.18	6.05	0.19(0.6655)
행복도	6.10	6.36	5.94	2.01(0.1588)
걱정정도	4.38	4.39	4.38	0.00(0.9670)
우울도	3.86	3.77	3.92	0.19(0.6649)

주: 만족감, 행복도, 걱정정도, 우울도는 10점 만점으로 측정됨.

- 태안군 청년의 자살충동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5명(3.5%)만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지 청년의 경우 7.1%가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유입 청년에 비해 현지 청년의 자살 충동 경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25〉 자살충동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있다	5 (3.5)	4 (7.1)	1 (1.2)
없다	138 (96.5)	52 (92.9)	86 (98.9)

$\chi^2=3.627$, df=1, prob=0.0568

6) 청년의 문화 · 여가

- 태안군 청년의 평일 여가시간 만족도는 3.3이고, 주말 여가시간 만족도는 3.4로,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 만족도는 보통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의 여가시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따라서 태안군 청년의 평일 및 주말 여가시간 만족도로 보통으로 평가됨.

〈표 26〉 여가시간 만족도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F값(prob)
평일 여가시간 만족도	3.3	3.4	3.2	1.80(0.1815)
주말 여가시간 만족도	3.4	3.4	3.3	0.29(0.5931)

주: 여가시간 만족도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 지난 1년간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태안군 청년은 22명(15.4%)에 불과함.
 - 한편 유입 청년의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은 18명(20.7%)인 것에 반해 현지 청년은 4명(7.1%)임.
 - 따라서 태안군 청년의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현지 청년이 유입 청년에 비해서 관람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관람 경험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있다	22 (15.4)	4 (7.1)	18 (20.7)
없다	121 (84.6)	52 (92.9)	69 (79.3)

$\chi^2=4.803$, df=1, prob=0.0284

- 태안군 청년의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관람 분야는 영화가 20명(5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연극·마당극·뮤지컬이 7명(17.5%), 미술관과 스포츠가 각각 5명(12.5%)임.

〈표 28〉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관람 분야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40 (100.0)	6 (100.0)	34 (100.0)
음악·연주회 콘서트	1 (2.5)	0 (0.0)	1 (2.9)
연극·마당극·뮤지컬	7 (17.5)	2 (33.3)	5 (14.7)
무용	2 (5.0)	0 (0.0)	2 (5.9)
영화	20 (50.0)	3 (50.0)	17 (50.0)
박물관	0 (0.0)	0 (0.0)	0 (0.0)
미술관	5 (12.5)	0 (0.0)	5 (14.7)
스포츠	5 (12.5)	1 (16.7)	4 (11.8)
기타	0 (0.0)	0 (0.0)	0 (0.0)

주: 관람 분야는 22명의 복수응답임.

- 태안군 청년이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관람을 하는 지역은 충남도 이외의 타 지역이 16명(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반면 태안군과 충남도 내 다른 시군은 각각 3명(13.6%)임.
 - 한편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관람 지역은 유입 청년과 현지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관람 지역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22 (100.0)	4 (100.0)	18 (100.0)
태안군	3 (13.6)	1 (25.0)	2 (11.1)
충남도 내 다른 시군	3 (13.6)	1 (25.0)	2 (11.1)
충남도 외 타 지역	16 (72.7)	2 (50.0)	14 (77.8)

$\chi^2=1.2731$, df=2, prob=0.5291

- 태안군 청년의 월평균 여가활동금액은 1만원 미만과 5~10만원이 각각 30명(21.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5만원 미만이 22명(15.4%), 15~29만원이 19명(13.3%) 등임.
- 한편 태안군의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의 월평균 여가활동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0〉 월평균 여가활동금액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1만원 미만	30 (21.0)	15 (26.8)	15 (17.2)
1~5만원 미만	22 (15.4)	12 (21.4)	10 (11.5)
5~10만원 미만	30 (21.0)	13 (23.2)	17 (19.5)
10~15만원 미만	15 (10.5)	6 (10.7)	9 (10.3)
15~20만원 미만	19 (13.3)	4 (7.1)	15 (17.2)
20~25만원 미만	6 (4.2)	1 (1.8)	5 (5.8)
25~30만원 미만	7 (4.9)	0 (0.0)	7 (8.1)
30~35만원 미만	4 (2.8)	2 (3.6)	2 (2.3)
35~40만원 미만	5 (3.5)	2 (3.6)	3 (3.5)
40만원 이상	5 (3.5)	1 (1.8)	4 (4.6)

$\chi^2=13.2528$, df=9, prob=0.1515

- 따라서 태안군 청년의 월평균 여가활동금액은 10만원 미만이 57.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태안군 청년이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부족이 50명(41.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18명(15.0%), 경제적 부담이 17명(14.2%) 등임.
-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하지 않는 이유는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따라서 태안군 내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비관람 이유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20 (100.0)	51 (100.0)	69 (100.0)
경제적 부담	17 (14.2)	9 (17.7)	8 (11.6)
시간 부족	50 (41.7)	23 (45.1)	27 (39.1)
건강이 좋지 않음	4 (3.3)	0 (0.0)	4 (5.8)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음	18 (15.0)	9 (17.7)	9 (13.0)
관람시설 부족	10 (8.3)	3 (5.9)	7 (10.1)
관람을 함께할 사람이 없음	11 (9.2)	4 (7.8)	7 (10.1)
관람정보 등 부족	4 (3.3)	1 (2.0)	3 (4.4)
교통혼잡 및 불편	3 (2.5)	2 (3.9)	1 (1.5)
기타	3 (2.5)	0 (0.0)	3 (4.4)

$\chi^2=8.6244$, df=8, prob=0.3750

- 한편 태안군 청년의 연간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 평균 관람횟수는 4.6회이고,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 관람 만족도는 3.1, 그리고 태안군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은 2.5로 나타남.

-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의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 평균 관람횟수와 태안군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의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 관련 만족도는 유입 청년이 현지 청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 관람 만족도와 태안군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 만족도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F값(prob)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 평균 관람횟수(회/년)	4.6	5.3	4.4	0.10(0.7507)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 관람 만족도	3.1	4.0	2.9	6.66(0.0175)
태안군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2.5	2.6	2.5	0.28(0.5980)

주: 만족도와 문화여가시설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7) 청년의 정책수요

- 태안군 청년은 태안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청년정책 활성화(24.5%)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복지 및 보건의료 강화(20.3%), 출산장려정책 활성화(19.6%), 기업유치 등 다양한 일자리 확충(18.2%)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한편 태안군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태안군 청년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양육자에 대한 지원 확대(38.5%)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교육기관의 돌봄 확대(20.3%), 지역내 돌봄 확대(14.0%)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태안군 인구증가정책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28 (19.6)	17 (30.4)	11 (12.6)
청년정책 활성화	35 (24.5)	13 (23.2)	22 (25.3)
기업유치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26 (18.2)	9 (16.1)	17 (19.5)
복지 및 보건의료 강화	29 (20.3)	9 (16.1)	20 (23.0)
귀농·귀어·귀촌정책 활성화	4 (2.8)	0 (0.0)	4 (4.6)
교통 등 생활편의 개선	9 (6.3)	3 (5.4)	6 (6.9)
돌봄확대 등 보육환경 개선	9 (6.3)	3 (5.4)	6 (6.9)
교육환경 개선(공교육 및 사교육)	2 (1.4)	2 (3.6)	0 (0.0)
기타	1 (0.7)	0 (0.0)	1 (1.2)

$\chi^2=13.1308$, $df=8$, $prob=0.1074$

〈표 34〉 태안군 출산장려정책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교육기관의 돌봄 확대(방과후학교 운영 등)	29 (20.3)	7 (12.5)	22 (25.3)
지역 내 돌봄 확대(다함께 돌봄 등)	20 (14.0)	8 (14.3)	12 (13.8)
전문돌봄시설 개선(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1 (7.7)	3 (5.4)	8 (9.2)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11 (7.7)	7 (12.5)	4 (4.6)
양육자에 대한 지원 확대(양육수당 등)	55 (38.5)	22 (39.3)	33 (37.9)
기업 및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 확산	8 (5.6)	4 (7.1)	4 (4.6)
공교육 및 사교육 강화	5 (3.5)	3 (5.4)	2 (2.3)
기타	4 (2.8)	2 (3.6)	2 (2.3)

$\chi^2=7.6907$, $df=7$, $prob=0.3607$

- 태안군 청년은 청년인구 유입 정책으로 일자리제공(47.6%)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주거안정(30.1%)으로 나타남.
- 한편 청년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따라서 태안군에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제공과 주거안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표 35〉 태안군 청년인구 유입 정책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주거안정(임대주택 지원, 보증금 융자, 월세 지원 등)	43 (30.1)	15 (26.8)	28 (32.2)
일자리제공(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창업지원 등)	68 (47.6)	31 (55.4)	37 (42.5)
자녀돌봄 지원(양육수당 지원, 돌봄교실 확대 등)	15 (10.5)	5 (8.9)	10 (11.5)
청년수당 등 구직활동비 지원	12 (8.4)	4 (7.1)	8 (9.2)
공동체의식 전환 및 청년소통 공간 조성	4 (2.8)	0 (0.0)	4 (4.6)
기타	1 (0.7)	1 (1.8)	0 (0.0)

$\chi^2=6.0224$, $df=5$, $prob=0.3040$

- 태안군 청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인프라 구축(35.0%)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18.9%)과 기업유치(18.9%)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함.
- 한편 현지 청년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유입 청년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 태안군 청년은 태안군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버스노선 배차시간 조정(31.5%)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 다음으로 운수종사자 친절 및 안전운행(21.7%), 실시간 운행정보 보서 정보시스템 개선(12.6%), 버스노선 증설(11.9%)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한편 대중교통 개선사항에 대해서 현지 청년과 유입 청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태안군 일자리 창출 정책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27 (18.9)	17 (30.4)	10 (11.5)
일자리 인프라 구축(일모아센터 등)	50 (35.0)	14 (25.0)	36 (41.4)
기업유치	27 (18.9)	8 (14.3)	19 (21.8)
창업지원 (창업자금 융자, 융자이자 지원, 창업공간 제공)	16 (11.2)	8 (14.3)	8 (9.2)
맞춤형 교육 강화(자격증 취득 교육)	6 (4.2)	2 (3.6)	4 (4.6)
공공일자리 확대(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16 (11.2)	7 (12.5)	9 (10.3)
기타	1 (0.7)	0 (0.0)	1 (1.2)

$\chi^2=11.7236$, df=6, prob=0.0684

〈표 37〉 태안군 대중교통 개선사항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지 청년	유입 청년
전체	143 (100.0)	56 (100.0)	87 (100.0)
버스노선 증설	17 (11.9)	5 (8.9)	12 (13.8)
버스노선 배차시간 조정	45 (31.5)	16 (28.6)	29 (33.3)
정류장 간 거리 조정	3 (2.1)	1 (1.8)	2 (2.3)
정류소 가림막(비, 햇빛 등) 시설 확대	14 (9.8)	8 (14.3)	6 (6.9)
실시간 운행정보 버스 정보시스템(BIS) 개선	18 (12.6)	6 (10.7)	12 (13.8)
운수종사자(운전사) 친절 및 안전운행	31 (21.7)	15 (26.8)	16 (18.4)
기타	15 (10.5)	5 (8.9)	10 (11.5)

$\chi^2=4.4445$, df=6, prob=0.6168

8) 분석결과의 요약

- (청년의 모습) 태안군 청년은 남자가 여자 보다 많고, 결혼한 경우가 미혼보다 많음.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은 읍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한편 현지 청년은 20대 이하와 40대가 많은 반면, 유입 청년은 주로 30대로 나타남. 그리고 현지 청년은 2인 이상 가구인 것에 반해 유입 청년은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
- (청년의 일자리) 태안군 청년은 70% 정도가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임금 근로자와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음.
 - 현지 청년은 주로 기능/노무에 종사하는 반면, 유입 청년은 전문/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음.
 - 한편 태안군 내 일자리 기회충분도, 소득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직장만족도는 보통인 것으로 평가됨.
- (청년의 주거) 태안군의 현지 청년은 주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유입 청년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현지 청년은 자기 집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유입 청년은 월세/기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태안군 청년의 주거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쇼핑시설과 휴식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한편 정주만족도의 경우 현지 청년이 유입 청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후 태안 거주 의사도 현지 청년이 유입 청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의 교육) 태안군의 현지 청년은 주로 고졸인 반면, 유입 청년은 주로 대졸임.
 - 태안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족도는 보통이지만, 평생교육 충분도는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특히 유입청년은 현지 청년에 비해서 태안군의 평생교육 충분도를 더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청년의 복지) 태안군 청년의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54%로 다수를 점유하고 있음.
 - 전체 청년의 60% 정도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현지 청년은 월소비액 대비 월가구소득이 동일한 반면, 유입 청년은 월소비액 대비 월가구소득이 작

은 경우가 더 많음.

- 태안군 청년의 삶의 만족감, 행복도, 걱정정도, 우울도는 양호한 수준임. 그러나 현지 청년이 유입 청년에 비해서 자살충동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의 문화·여가) 태안군 청년의 평일 및 여가시간 만족도는 보통 수준임. 그러나 지난 1년간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비중은 15.4%로 매우 제한적임.

- 태안군 청년 대부분은 충남 외의 다른 지역에서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하고 있고, 월평균 10만원 미만의 여가활동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태안군 청년이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부족과 프로그램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태안군 문화여가시설의 접근성과 충분정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년의 정책수요) 태안군 청년은 태안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청년정책 활성화와 복지 및 보건 의료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양육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교육기관의 돌봄 확대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
- 청년 유입정책으로는 일자리제공과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현지 청년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선호하는 반면, 유입 청년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끝으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버스노선 배차시간 조정과 운수종사자 친절 및 안전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05

결론 및 향후과제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에서 매년 발행하는 충남사회조사를 활용하여 태안군의 청년실태 분석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임.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안군은 별도의 조사를 통하지 않고 충남사회조사를 활용하여 매년 태안군의 청년실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태안군의 청년실태는 청년의 모습,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여가, 정책수요 등 6가지 항목임.
- 다만 충남사회조사를 활용하여 태안군의 청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첫째, 2023년의 기준 충남사회조사에서 태안군 청년의 조사표본이 실제 태안군 인구 비중보다 과소 표집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충남사회조사 시 태안군 청년의 표본수가 태안군 청년 인구 비례로 추출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충남사회조사의 태안군 조사표에 참여·권리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청년실태 조사의 기본적인 항목을 충족시켜야 할 것임.
 - 셋째, 충남사회조사의 조사항목과 청년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비교하여 추가할 수 있는 분석변수를 발굴하고, 기존 변수사용의 문제점을 확인 및 보완해야 할 것임.
- 향후 태안군의 청년실태조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사내용을 태안군 청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실천이 요구됨.
 - 첫째, 태안군 청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청년의 유형화와 태안군 청년의 문제점에 대한 명

확한 인식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태안군 청년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결과를 청년들과 공유하고, 실태조사의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셋째, 태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하는 청년실태조사와 매년 시행되는 충남사회조사 활용 청년실태조사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넷째, 매 2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충남청년실태조사와 연계하여 태안군 청년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참고문헌

대한민국(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충청남도(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충청남도(20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충청남도(2023), 충청남도 청년종합실태조사.

태안군(2024a), 태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

태안군(2024b), 태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